

1단계 1년 넘도록 협상 못 끝내고 2단계는 시작도 못해

우리 목소리 커지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인 2020년 7월 도시공원구역 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공원 일부를 개발해 나머지 면적을 보존·조성하겠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량·마복·봉산·송암공원을 대상으로 한 1단계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1년이 다 됐지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중앙·일곡·중의·송정·운암산·신용(운암) 공원 등 6개 공원 7개 지구가 포함된 2단계도 협상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다.

시간이 촉박해 향후 광주시가 내세운 공원 면적 최대한 보존, 개발 규모 축소 등 '공원 개발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2단계 공원 개발 규모 22.9%, 8.6%지키어=광주시는 지난 2017년 8월 말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간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 18차례 회의와 현장 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2018년 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의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15곳은 2022년까지 시 재정 1629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하고,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되 개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1단계는 평균 개발 면적을 22.5%, 면적이 크고 시민 영향력이 높은 2단계는 8.6%로 각각 줄였다.

이 같은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용도지

일몰제 시한 2020년 7월

내년 상반기 토지수용 끝내야

정상적인 공원 특례사업 가능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해야

역변경 결정 고시, 토지 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2단계, 후속 행정절차 신속히 진행해야=2단계는 6개 공원 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재공고를 해야 한다.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같은 달 15일 감사에 착수해 12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재논의를 결정,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면서 협상일정이 지연됐다. 시간이 지연될 만큼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논란에 이어 학교 부지, 분양가 공개 문제까지=수량·마복·봉산·송암공원 등 1단계 대상 공원은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를 거쳐 개발 면적을 33만30㎡(공원 면적의 25%)에서 29만8119㎡(22.5%)로 3만1911㎡를 축소하고 아파트 공급 세대수도 기존 6371세대에서 5313세대로 1058세대(16.6%)를 줄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인 2020년 7월 도시공원구역 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1단계는 1년이 넘도록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2단계는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중앙공원 전경.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에는 모두 410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뒤늦게 학생 인원 산정·학교 신축·주변 학교 증축 문제 등이 불거졌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시 협상단이 우선협상자인 개발·건설업체에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제안 수용 여부 통보, 도시계획위·도시공원위 심의 등의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둘러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하고,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르면 내일 靑비서진 개편...비서실장 노영민·정동채 유력

정무수석 강기정·이철희 거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8일 인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 대사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 대사는 2012년 문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당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여기에 조운제 주미대사와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단계

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의원과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에는 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기용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승진 인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여권이 아닌 외부 인사를 등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인사를 서두르는 것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 전열을 조기에 정비하겠다는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고용 지표 등 일부 경제지표 부진에,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등이 겹쳐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자 분위

색신의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신과 손발이 잘 맞는 인사들로 새롭게 참모진을 꾸려 국정 운영에 힘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성 친문 인사들의 청와대 입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인선 방향이 친정 체제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화합형 인사들이 깜짝 발탁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10일 신년 기자회견...기자단과 직접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100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에서 20분간 기자회견문을 먼저 발표한 뒤 10시 25분부터 영빈관에서 일문일답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문답을 직접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직접 특정 현안을 발표한 것은 취임 당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소개할 때와 재직년 5월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비공개로 열렸던 5·26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이틀날 설명하기 위한 자리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3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견 형식은 타운홀 미팅 틀을 준용할 계획이며, 사회자 등 개인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자단과 일문일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특별법 시행 4개월만에...한국당 5·18조사위원 오늘 추천키로

나원내대표 직접 후보자 접촉

군출신 보수인사 추천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진상규명위원 추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오는 7일까지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원 구성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3일 안에 결론을 내고, 월요일(7일)쯤 위원 선정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직접

후보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추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이 추천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극우 인사들을 추천할 경우, 오히려 후폭풍이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군과 법조

계, 학계를 망라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이끌어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사를 선별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군출신 보수 인사 등을 추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인사를 추천하면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며 "7일에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이 있는 날인 만큼 정치권이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